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9. 27.(금) 11:00 < 9.28.(토) 조간 > 배포 2024. 9. 27.(금)

뉴스페이스 시대로 도약, 산업부-방사청-우주청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 설계

- 산업부-방사청-우주청 '민-군 공통 우주소자 및 부품' 표준 · 인증체계 구축키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이하 산업부)와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이하 방사청),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이하 우주청)은 9월 27일(금) 우주항공청에서 우주산업 표준 ·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식에는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 방사청, 우주청,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처별 우주산업 육성방안 및 국가표준화 전략사안을 발표하고, 업무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을 실시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는 우주 표준 및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주기술 발전과 우주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각 부처는 다음과 같은 협력 사항에 합의하였으며, 표준화를 통해 민과 군의 수요를 모음으로써 그간 외산이 주류였던 우주산업 소자 및 부품의 국산화와 국내 부품기업 육성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 주요내용】

① (**표준 및 인증체계 구축협력**) 민·군 공통으로 추진하는 우주산업 소자 및 부품에 대한 표준(KS) 및 인증체계 구축

② **(인프라/사업발굴)** 표준·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발굴, 인프라 구축 및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③ **(기타)** 관련 정책개발 및 수출진흥, 공급망관리 등 정보교류

첫째, 민과 군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우주산업 소자 및 부품에 대해서는 표준(KS) 및 인증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하였고, 우주산업 구성품에서는 KS 및 국방표준·인증체계를 활용하되 상호 업무지원을 통한 통합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둘째, 국가우주 표준/인증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발굴과 인프라 형성, 국제 표준화 활동 등에는 상호 업무지원으로 국내 우주산업을 육성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군 공통 우주산업 소자 및 부품, 구성품에 대한 정책개발, 수출진흥, 공급망 관리 등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하였다.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은 “공통 부품류에 대한 국가표준 및 인증체계 도입은 우주산업 내 기업들이 중복된 노력을 줄이고, 부품의 호환성을 높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산업부는 이번 국내 표준 협력을 국제표준화 활동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 우주기술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방사청은 작년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였고, 앞으로는 초소형 위성체계를 개발하여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정찰 자산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소형 위성 개발수요가 급속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우주산업의 표준 및 인증체계 구축은 기술, 안전, 품질 등의 기준을 통일하여 우주 부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민·군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우주산업 표준 및 품질인증체계 마련을 통해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우주기술의 체계적인 인프라 형성을 통해 범국가적 우주 임무의 성공과 우주선진국으로써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책임자	과 장	김종윤 (043-870-5370)
		담당자	사무관	남경민 (043-870-5463)
담당 부서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선영 (02-2079-6410)
		담당자	소 령	김세랑 (02-2079-6412)
담당 부서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혜경 (055-856-4310)
		담당자	사무관	이원재 (055-856-431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